

교회소식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Lock down 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힘써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2. 공동 성경 읽기 이번 주 범위는 시편 51-71편까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3. TEE 성경공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향존 직분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 바랍니다 (개강: 9월 20일, 기도 과목은 평생과 신도 중 한 과목을 수강한 다음 가능).

과목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기도
요일 및 시간	화요일 오후 7시30분	수요일 오후 2시	주일 오후 3시50분
담임 목사	이성철 목사	이성훈 목사	이태한 목사
기간 / 회비	15주 / \$20	11주 / \$25	11주 / \$20

4. 각 공동체장들은 전화와 카톡을 이용하여 공동체 식구들을 심방하고 격려하기 바랍니다.
5.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으로 전달된 주소를 클릭 하여 참여하기 바랍니다 (예배 순서 주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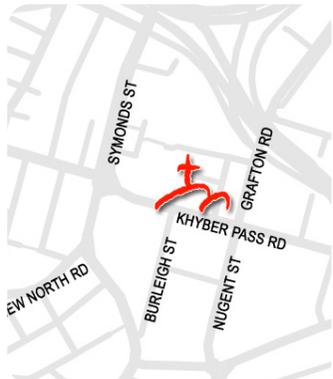
온라인 헌금 방법: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09 369 5077 / 021 968 388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9월 교회사역일지

9월 20일 (주일)
그루터기 주일
9월 27일 (주일)
성찬주일,
권사 기도회
9월 30일 (수)
1,2 남선교회
헌신예배

9월 기도순서

9월 13일 (주일)
박덕철 장로
9월 16일 (수)
정진택 집사
9월 20일 (주일)
박병민 장로
9월 23일 (수)
정혜숙 권사

9월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이광희, 김순자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A, 허영순,
박소진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2권 36호

2020.09.06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pm
청년예배 주일 3:15pm
수요일예배 수 7:30pm
금요기도 금 7:00pm
유아부 주일 1:00pm
아동부 주일 1:00pm
청소년부 주일 1:00pm

섬기는 사람들

담임 목사 이태한
부 목사 이성철
부 목사 이성훈

청년예배

금주기도
-
다음주일
-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20분
2부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찬양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시편 84:1-4	인도자
✧ 찬송	35장	다함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270장	다함께
대표기도	-----	김철재 집사
성경봉독	창세기 12:4-9	인도자
설교	찾아가야 할 곳	이태한 목사
찬송	저 멀리 보는 나의 시온성	다함께
헌금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 응답송	310장 (1,4절)	다같이
✧ 축도	-----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입금으로 합니다.

수요일예배 (가정예배) 오후 7시 30분

기도	정옥자 권사
성경봉독	여호수아 7:1-5
설교	신앙인의 실패 이태한 목사
찬송	360장
주기도	다같이

선교란

이번 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김현태 선교사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드립니다.

해마다 불어오는 태풍으로 인한 고국의 홍수 피해를 전해 들으며 안타깝던 중 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려 한층 더 어렵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간 온 식구들 그리고 교회, 사업장 모두 평안하신지요?

여기 남아공은 8월 3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625,056명이며 누적 사망자가 무려 14,02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한인 중에 첫 희생자가 나왔는데 저희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요하네스버그에 사시는 권사님의 남동생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을 받아 병원에 계시다가 주님 곁에 가셨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만났었고 신앙과 인품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래 그 아픔은 더했고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레벨 2로 낮추어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되었고 학교도 부분적으로 열어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올 것으로 정부에서는 예상하고 있어서 더 많은 주의와 더 많은 기도가 요청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 18:29).

저희들은 예수님 피 묻은 손 붙잡고 출입을 지켜주실 줄 믿고 선교지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늘 아프리카 영혼들과 선교사를 위해 보내 주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나 봅니다.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온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업장 다 행통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며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보내 주시는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31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김현태 맹연수 선교사

기도 제목

-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폭동이 속히 끝나 지역사회가 안정되도록.
-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수그러들어 어려움 중에 있는 흑인촌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갖도록.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인 예배에 온전히 회답하는 갈보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2. 길어지는 Lock down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 성도가 되도록.
3. 생업과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환경보다 말씀을 근거로 잘 이겨내도록.

나눔란

2020년 8월 30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떠나야 할 곳> 창세기 12:1-3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아브라함의 가정사: 스테반의 설교에 나온 아브라함의 가정사를(행 7:2-3)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도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가족사가 드러납니다(수 24:2).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돌감람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나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나다니엘처럼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후부터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고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고전 15:10)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큰 은혜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빌 1:6)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학식 있고 경건해서 부르신 게 아니듯 나를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 8:2).

2) 떠나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즉 삶 전체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12:1). 편하고 안정된 곳에서 떠나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기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편안한 삶의 보금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침돌이 되기에 하나님은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며 새끼가 떨어지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올리듯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신 32:11). 또 하나님은 보여 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12: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에(히 11:1)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떠나는 것은 지금까지의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3)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라고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12:2). 이 약속은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들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복이 된다는 것은 나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12:3). 즉 더 이상 사람의 인정과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온다 하신 말씀대로(요 7:38) 이제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복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시 23:1)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아무 내세울 것도 없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다윗을 거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까지 부르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아브람을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에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갈보리 성도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담겨있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 - 창세기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와 말씀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